

1. 自立된 100教会의 設立
2. 主님의 일꾼의 養成
3. 작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宣敎
4. 在日同胞의 삶에 同參하는 奉仕



THE GOSPEL NEWS

發行所 福音新聞社

〒169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3202)5398 8番

發行人 崔昌華 · 編集人 金安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50円

昭和39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 青丘文化社

0474-24-7461

크리스마스 메시지

마태복음 1:18-25

총회장 최

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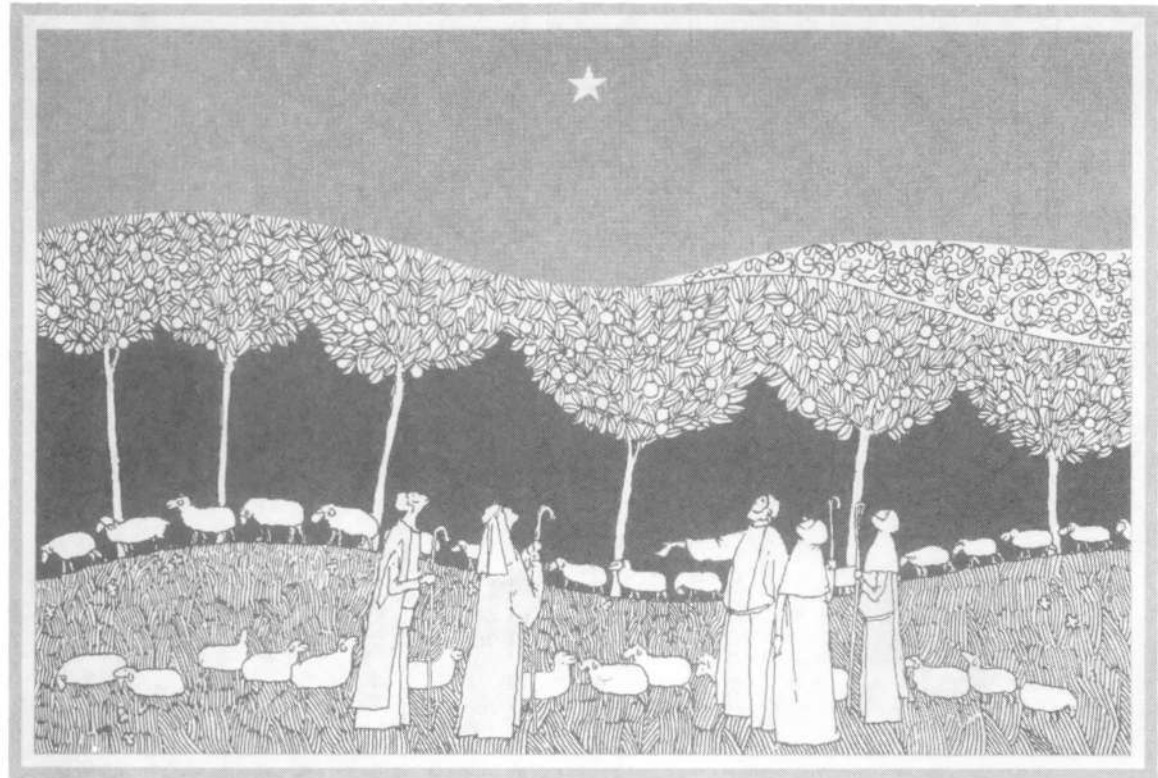
1992년의 성탄절을 「우리」 죄 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고, 그 대표적인 예언이 성도 가정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가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과서에는 백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편찬되어 가리움을 받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 잘못된 교육이 우리 들 마음속에 편견을 날게 하고 사람을 선주인을 차 별하는 의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2월12일, 규슈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 규슈, 나고야, 오사카, 모리, 임진왜란 40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침략 400년 을 기억하는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400년 전 역사에서 이러한 집회와 조선 침략 에 출발한 땅 침략군지 에서 침략을 고발하는 집 회는 처음인 줄로 생각되 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우리들은 코토에 있는 귀부당을 생 각하게 됩니다. 조선 백성 들의 귀를 끌고 소름을 일으키는 데요시에게 보내여 전공 을 자랑하였던 귀부당입니다. 우리들은 「임진왜란」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억하 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배 우지 못하였고, 또 배운 것 회를 갖지 못하여, 닛봉사 회에서 점점 잊어가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규슈에는 많은 사람이 강제연행되어 살고 있지만 한국사람, 조 선사람의 자손이라고 자부 심을 갖고 있는 분은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또, 임진왜란 때, 약 20 만명이 강제연행되었다는 것이, 5만 내지 6만이 노예로 팔렸으므로 마카오, 비올라, 인도 등지에 팔려 갔다는 것입니다. 노예 매 매가 아메리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노예에서 한 국사람을 노예로 매매하였 다는 것입니다. 1592년 고니시 유키 무네히 조선침략이 있다는

祝 聖 誕

在日大韓基督教会總會

- | | | | | | | | | | | | | | | | | |
|--------|------------------|---------------------------------|-----------------------|---|-----------------------|------------------|------------------|------------------|------------------|------------------|------------------|------------------|-------------|--------|-------------|-------------|
| 總
務 | 會
計
監
査 | 法
的
地
位
委
員
長 | 神
學
委
員
長 | 平
和
統
一
宣
敎
委
員
長 | 試
取
委
員
長 | 人
事
局
長 | 財
政
局
長 | 青
年
局
長 | 婦
女
局
長 | 社
會
局
長 | 教
育
局
長 | 傳
道
局
長 | 副
書
記 | 書
記 | 副
會
長 | 總
會
長 |
| 金 安 | 林 許 | 徐 金 | 姜 榮 | 黃 金 | 李 李 | 崔 張 | 朴 芮 | 麥 尹 | 楊 楊 | 姜 李 | 裴 金 | 崔 昌 | 基 君 | 榮 炳 | 炯 宗 | 仁 成 |
| 安 秉 | 秉 昌 | 又 鴻 | 榮 一 | 義 榮 | 仁 大 | 昌 鐘 | 憲 戊 | 華 善 | 京 華 | 夏 京 | 道 銀 | 春 一 | 球 秀 | 植 華 | 弘 炫 | 魯 業 |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말속에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인 죄를 지은 개인으로 생각하여왔고, 사실 죄를 짓는 개인 개인 이 죄의 자각, 죄의 의식 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극히 개인적 구제 적인 것이지만 사회의 여 러제도 속에 내포되어 제 도, 풍습, 자체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죄를 짓도 록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이 코람부스가 아 메리카 대륙 발견500년 이라고 여러 축제가 있었 으나 그것은 백인, 코람 부스의 입장에서 스스로 그렇게 호칭한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선 주민에게 있어서는 타자의 침입이고 침략이었던 것

이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군대는 한국에서 무자비한 살해를 했던 것 입니다. 그때 한국사람들 이 죽어가면서 외친 것이 「왜 남의 나라 침입하여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가 당신 나라에 무슨 해로운 일하였느냐?」고 외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닛봉에서는 교과서 에 「조선정벌」(朝鮮征伐)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 다. 닛봉은 옳고 조선은 악 하므로 졌다는 사고입니다. 아직도 닛봉사람들의 식에 는 이러한 의식이 많습니 다. 요즘에는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기록하 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출병하였느냐, 돕기 위 해 출병하였느냐, 문제이며 그 의식을 물어야 합니다. 나다. 임마누엘.....

金 徳 成（大阪教会名誉牧師）

이
우
의
중
이
다

教會職分者를 比擬할 것
우라도 論爭보다는 知惠
와 인내를 가져라. 伝道
中에 教會의 事業이나 世
俗의 人 對話는 피하자.
무슨 말을 듣든지 速斷하
지 말자. 地方色을 너무드
러내지 말자. 他宗教나 他
教派를 批判하지 말라. 自
己자랑, 自己家庭자랑도 너
무 말하지 말라. 오직 福
音의 能力이 十字架의 能
力(롬1:16 고전1:18)
만 나타나기를 祈禱하며 注
意하자. 福音의 能力을 믿
자.

六、 伝道者의 祝福

伝道는 主님의 至上命
令입니다. 伝道는 오늘의
教會에게 맡기신 第一의
명령이요, 課題입니다. 그
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伝道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農夫시요, 예수
님은 포도나무요, 우리(信
者)는 가지입니다(요15:1).
가지는 열매로 祝福을
보여줍니다. 救援받은 여
러諸職을이여, 하나님의 救
援을 예수님의 伝道파라
教會의 宣敎의 使命을 이
루기 위하여 敎役者의 宣
敎와 方向파라, 伝道로 하
나님께 榮光을 돌립니다.
一九九三年을 맞아 伝道하
는 諸職으로 決心합니다.



尹 宗 銀 牧師（横浜教会）

うな不透明な教理にまでさかのぼ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ずれにしても、このような極めて重要な真理をあんまりはつきりとあらわすことは人間の言葉では不可能に近いのはたしかである。三位一体の教理は次の三つの陳述でもってあらわされる。

(1) 神はひとりである。(2) 御父も神「である」。御子も神「である」。そして聖霊も神「である」。(3) 三位はそれぞれ異なる位格として「区別」されている。

この教理の陳述において二つの相反するのうに見える真理が慎重に保たれていることを注視すべきである。これら二つの真理とは神の唯一性と複数性である。唯一性はただひとりの神ある。是一位の神だけを主張し、神が三位に区別されることを否定する。また三位が同一の神である。また多神論者たちは神と呼ばれるかたがひとりだけではなく、多数であると信ずる人々である。しかし彼らは、このような「神々」が全く同じ本質、または本体として存在するとは絶対に信じないのである。モルモン教徒たちがまさに多神論者たちである。ユニテリアンと多神論者、これら両者は共に三位一体の教理を安易な考えで理解しようとする。しかし、この三位一体の教理が彼らの立場を有利にする論争のたねになると、あるいは歴史的なキリスト教信仰に「反対する」論争点となるとは考えない方がよい。

「わたしは初めてであり、わたしは終りである。わたしのほかに神はない」(イザヤ 44:6b)。聖書の中にこれ以上強調してしつこく教えられた真理はない。実際に存在する神はただひとりである。

(2) 次に聖書は聖父だけでなく、聖子と聖霊をも神であられる事実をわたしたちに明らかに教えている。御

問5、神ひとり以外にも神々がいるか？

答、ただひとりしかない。神は生きた、まことの神である(1)。

問6 その神は、いくつの位格があるか？

答 神には三つの位格があり、御父と、聖霊である(2)。この三位は、実体が同じで能力と栄光において同等なひとりの神である(3)。

(1) I コリント 8・4、(2) マタイ 28・19、(3) II コリント 13・13

【講解】この二つの聖經要理問答にはキリスト教信仰の最も重要な教理をわたしたちに示されている。これは即ち三位一体の教理である。ある人々は以下のように言っている。「どうしても全くあやまった思考によてさぐりあてて、このよ

という事実をもって表現されている。これはしばしば分別のない考えをもたらし。例えば、エホバの証人のような偽りの宗派では、この三位一体の教理をあざけるのである。彼らは、この三位一体の教理を信じる人々は、実際に、三つの神を信ずるのである、と言うのである。三位一体の神の教理を信じない人は、「三位一体説信奉者」ではなく、ユニテリアン派の人、キリストを神としない」である。即ち彼らは、神がただ一位しかないと思っているのでユニテリアンである。彼らはイエスを神の被造物であつて(父なる神のように自存する方ではない) 聖霊は単純に神の力をあらわす名にすぎない(父なる神のような人格ではない)のである。ユニテリアン(エホバの証人はユニテリアンの一つで

とは異なる(「イザヤ 55・8」) と言っておられるからである。即ち、わたしたちは三位一体の教理が人間に合理的に考えられるから信じられると言ふようなものではないと覺え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わたしたちが、この三位一体の教理を信じられるただ一つの理由は、聖書がその他の見解をゆるさないからである。今わたしたちは三位一体の教理を信ずべき幾つかの聖書の証言を考察しなければならぬ。

(1) (聖書が生きておられるまことの神はただひとりであられることをわたしたちに明確に教えている)。

「地のすべての民は、主が神であることと、他に神のないことを知るに至るであろう」(王上 8・60)。「たとい神々というものが、あるいは天に、あるいは地にあるとしても、そして多くの

この点に関して聖書の多くの証言の中で一個所だけを引用することにしよう。「神を見た者はまだひとりもない。ただ父のふところにいるひとり子なる神だけが神であらわしたのである」(ヨハネ 1・18)。

しかし聖書は御子も全く同様に神であると宣言している。詩篇 45・6 に、わたしたちはメシヤに関して「ああ神よ、あなたの位は永遠にかぎりなく続く」とあるのを読むことができる。またイザヤ 9・6、7 では「ひとりのみどりごがわれわれに与えられた。その名にわにに与えられた。『奇妙なる議士(驚くべき指導者)・大能の神』とよばれる」とある。新約の聖書では、わたしたちは「この言が神である」(ヨハネ 1・1)と読むのである。

関東地方会

會計監查 會計監查 會計監查 婦女部長 青年部長 社會部長 教育部長 伝道部長 副會計 會計 副書記 書記 副會長 會長
 朴金李朱金金朴黃金張李朴金李 柳金李朴金鄭尹金金吳鄭康姜慶
 茂恩光文永桂茂義英鍾建永光應 尚鴻仁憲柄相宗君慶太京然景榮惠
 樹敦世洪秀昊樹生世善豪昊洙周 熙植夏郁鎬熙銀植得休世元洽一重

